

in Who?

2023년 12월 Vol. 7



인후생활문화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

일상 속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동호회활동, 각 기관별 연계사업, 체험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0,7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한 작은도서관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생활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Contents

생활문화 플러스	05	인후취향발굴소
	12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
Makers	17	한중일 한상차림(미니어처한상 / 중국편 / 일본편 / 김밥대첩)
인후	19	설날강정만들기 / 아기자기그립톡
	20	올망졸망 다육정원 / 복을담다
	21	비오는날의스케치 / 나를닮은 뽀글키링 /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22	2023 교육 프로그램
	23	2023 동호회 프로그램
생활문화 네트워크	25	인후1동 자생단체 『안골콘서트』/ 안골노인복지관 『어르신 배식봉사』
	26	지역어린이집네트워크 『꿈꾸는 창작 놀이터』
	28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사드락사드락 생활문화』/ 『손끝으로 그리는 세상』
	30	평생학습네트워크 『해설이있는 미니음악회』/ 『평생학습한마당』/ 『키오스크교육』
	3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탄소중립 시민교육』
	31	효자시니어클럽, 안골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노인사회활동서비스』
계단 갤러리	33	전민주 작품전 / 인후보태니컬아트 동호회 작품전 / 꽃길캘리그래피 동호회 작품전
	34	김아람 '팝아트' 작품전 / 김태영 '나뭇잎아트' 작품전 / 쏘잉매직 동호회 작품전
	35	유정연 '쓰레기 살림꾼' 정크아트 / 양말희 '마리, 천에 꽃 피우다' 작품전 / 박병대 '흐름' 작품전
책마을	37	독서문화플러스
		봄마중 / 천냥금기르기 / 그 가방에뭐있니? / 책 속 친구를 소개합니다
		농부아저씨감사합니다 / 마음만은 벌써한가위 '송편만들기'
	40	사업성과공유회
	42	인후생활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사용설명서

생활 문화 플러스

삶에 플러스가 되는 기획사업



202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인후취향발굴소



지역주민의 진정한 “취향발굴”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는 평일에만 운영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이용하기 힘들어
여긴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주부들이 이용하는 공간 아닌가요?
인후문화의집이죠?”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보다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친근하게 불리고 약 3년간 이어진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동체 활동보다 개인의 취미생활과 자신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요즘!!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한 주말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생활문화활동을 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잃은 지역 주

민에게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즐거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취향을 발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기적 생활문화공간인 ‘인후취향발굴소’를 열어보기로 했다.

기 획 자 한 마 디

사전 기획회의부터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취향발굴소!!!

센터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서 주민운영위원회와 함께 구성했던 인후취향발굴단 덕분이었습니다. 매월 새로운 구성으로 겹치지 않도록 마을 달인이 되어 주시고 지역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배워주신 덕분에 작지만 내실 있는 취향발굴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6회 이상 이어진 회의 속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참여 지역주민들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즐겁게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유익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플리마켓 & POP UP STORE 나눔가게

6월부터 11월까지 6회 동안 진행된 인후취향발굴소는 유기적 구조를 가진 ‘미니어처 우리마을’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과 만남의 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에 운영했던 POP UP STORE 나눔가게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취향발굴을 위해 오는 지역주민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 기부를 통해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을 이끌어 냈다.



올해도 이렇게 플리마켓과 POP UP STORE 나눔가게에서 미처 팔리지 못한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더 많은 주인을 만나게 되고, 판매된 수익금은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 쓰이게 될 것이다.

지갑 열기엔 팍팍한 요즘 물가, 아직 쓸모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버려지는 수많은 물건들!! 쓰레기 문제로 지역의 곳곳에서 몸살을 앓지만 비용을 들여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 필요한 물건을 나눠 쓰며 진정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공연 & 거리전시

매월 계단갤러리를 통해 지역에서 소소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숨겨진 좋은 작가들의 작품은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활문화활동을 하는지 취향발굴소를 통해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8월엔 그림이 좋아 모인 4명의 사람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고 출판물까지 제작하고 있는 취향발굴단의 일원인 ‘한송’ 선생님께서 예쁘고 낭랑한 목소리로 ‘시낭송’을 해주셨다.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열혈 포토그래퍼 덕분에 취향발굴소의 오프닝이 더욱 흐뭇한 미소로 가득 넘쳤다.

“전주에도 뮤지컬 동호회가 있어요?”
“노래 멋진데 왜 1곡 밖에 준비 안했어요.”
“아니... 여자분이 어쩔 저렇게 드림을 멋지게 잘 쳐요. 여기 생활문화센터에서 드림도 가르쳐 줘요?”
“깜짝이야! 드림 소리가 꽤 크게 나네요.”

9월의 취향발굴소와 10월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진 뮤지컬 공연과 드림공연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MJR 컴퍼니’와 인후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드림’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 중에서 연습으로 같고 닳은 멋진 실력을 뽐내 주셨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의 프로그램 문의로 이어졌던 흥미로운 공연이었다.



“이런 글씨는 어떻게 쓰시는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거리에서 전시할 수 있어서 좋네. 어린 친구들에게 캘리그래피를 소개할 수도 있고(웃음).”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쁘게 쓰인 글씨들을 보며 소녀 웃음과 함께 질문을 쏟아낸다. 작품설명을 해주시며 엽서 하나씩을 선물하는 작가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거리 전시회!!

✧ 체험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인생이 즐겁고 신나는 일만 가득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있을까? 취미는 인간의 삶에서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빠르게 반영하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으며 나를 들여다 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 모두의 취향을 발굴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이번 추석엔 정성스럽게 적힌 캘리그래피 봉투에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이오난사화분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약한데... 진짜 물 안줘도 되요?”

매월 새로운 내용의 체험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작지만 알찬 체험들을 기존 이용객 외 새로운 지역주민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파츠 붙이고 그림톡 꾸미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네요.”
“미키마우스 저도 잘 그릴 수 있는데 엄마 대신 제가 그려도 되요?”
“우리 집에도 매실액기스 담아 놓은 것 잔뜩 있는데 이렇게 탄산수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 해먹어 봐야겠어.”

“집안의 화목을 위해 놓는 그림은 뭐가 좋아요?”
“전 부자 되고 싶어요. 모란이 부귀를 상징 하는 것 맞나요?”
“꽃꽂이를 꼭 한번은 배워보고 싶어서 유튜브도 따라해 봤는데 좀처럼 안 되던데요?
막상 배우자니 너무 비싸고...”
“이거 향이 너무 좋다. 바르고 간단한 스트레칭 해도 개운해 질 것 같아.”

인후취향발굴단 |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인후취향발굴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방향 중 중요한 1가지는 주민기획단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공간 지속성 모색이었다.

인후에서도 프랑스 자수 동호회인 ‘쏘잉매직’ 1팀, 그림책 공동체 ‘콘크리에이터’ 1팀, 지역 공방 ‘탐나랑’ 1팀으로 구성된 취향발굴단은 이미 자신의 취향을 찾아 본 적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취향발굴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취향발굴단은 매월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캠페인, 자료집 제작까지 새로운 취향발굴소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회의를 진행했다.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싶은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
“꼭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이 아니더라도 SNS에 나오는 릴스나 유튜브 숏츠 같은 걸 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문화센터를 그저 단순체험 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때로는 학습자로서 천아트, 디지털 애니메이션, 토탈 공예 등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 강사로서 취향발굴소에서 마을 달인이 되어 지역주민의 취향발굴을 돕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구성되었던 취향발굴단 외에도 뮤지컬 동호회 ‘MJR컴퍼니’, 지역 공예 공동체 ‘열손가락’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열일해준 초등학생 마을달인 ‘강민’군, 캘리그래피로 열심히 애써주신 ‘이석재 선생님’까지 모두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 교육

취향발굴단은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마을 달인으로 활약하기 위해 여러 학습이 필요했다.

단순히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문화예술부터 생활상식과 관련된 교육까지 이루어졌다. 때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족한 재료나 비싼 아이패드와 같은 것을 직접 구입 및 준비해 주기도 하시고 취향발굴소를 위해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할 때는 따로 찾아다니시며 여러모로 애써주셨다. 그래서 6회 동안 진행되는 취향발굴소는 더욱 풍성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올해의 사업내용이 줄줄이 나열되는 소식지 차원의 자료집 말고 우리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료집을 제대로 제작해 보기 위해 배워왔던 ‘글쓰기’, ‘디지털 캘리그래피’, ‘디지털 애니메이션’.

지역주민의 다양한 취향발굴을 위해 흥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해 보았던 5번의 토탈 공예(힙팟클래스, 제로웨이스트 가루 세탁세제, 톨크소프트 캔들, 입욕제 만들기, 보석캔들 클래스)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의 제안과 계단갤러리 전시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천아트’ 지역에서 하는 ‘문화기획’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만나봤던 활동가의 이야기까지...

교육의 목적이 취향발굴단의 확장 및 양성에 있는 만큼 관심이 있다면 일반 지역주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대신에 취향발굴소에 배운 내용을 전시, 체험, 공연 등 작은 재능 기부로 환원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처음엔 쭈뼛거리며 어려워했던 분들이 회차가 지날수록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서 소개해 주는 모습에 뿌듯함과 감사함이 넘쳤던 취향발굴단!!



* 지역주민 제안 프로그램

취향발굴소&취향발굴단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피드백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를 열어두었다. 그 중 1줄 체험평과 1줄 기대평은 짧지만 참여자의 함축된 의도와 내재된 취향에 대한 욕구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인문학, 환경, 미술, 창작, 체험 활동 뿐만아니라 생활상식,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많이 남겨 주셨다.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교육’이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종종 등장하는 뉴스에 일상생활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막상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제대로 교육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실습까지 진행하면서 뜨거운 참여율에 놀라고, 만족도에 두 번 놀랐던 교육이었다.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피로감을 느끼지만 천천히 자신만의 박자를 찾아볼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느끼며 몸과 마음을 느끼는 치유와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많이 요청하셨다. ‘내 마음에 휴식을 주는 시간’과 ‘향기로운 설렘을 그대에게’는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사원 등으로 살아내느라 힘들었던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런 시간이 적응하기 힘들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향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30가지 아로마 시향을 통해 자신만의 아로마를 브랜딩하고 몸과 정신의 휴식을 주는 시간도 가져보고 생전 받아보기 힘들 것 같은 꽃다발도 나에게 선물해 보았다. “선생님!! 이거 또 언제해요? 또 안해요?” “다음에 하면 꼭 연락 주세요. 저 다시 하고 싶어요.”



생활문화플러스-삶에 플러스가 되는 '기획사업'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활동 지원 사업」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

기 획 자 한 마 디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이란?
현재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실천해보기 위해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이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지구를 사랑하는 살림꾼들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쓰레기 문제를 체감해보고,
정크아트를 통해 예술로 놀이하며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 - 발대식

- 전주시 생활쓰레기 배출 현황과 폐기물 처리 과정 알아보기
- 일반쓰레기이지만 플라스틱, 종이인 척하는 쓰레기들? 올바른 분리배출법 배워보기
- 쓰레기 없는 행사 진행, 다회용기에 나눠 먹으며 비건 다과 맛보기

(주)사람과환경 강재원 대표님의 첫 강의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센터 근처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직접 가져 오셔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 플라스틱인척하는 쓰레기, 종이인척하는 쓰레기 등 척하는 쓰레기들을 어디로 버려야 하는지까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갈 곳이 있음에도 제대로 버려지지 못한 슬픈 운명이었던 쓰레기들. 이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아시죠?



* 정기모임 1차

- 삼한국대부인, 전주류씨제각 등 문화해설을 들으며 즐기는 인후동 이야기
- 우리동네 쓰레기를 줍고, 직접 분리배출을 해보며 쓰레기 문제 체감하기
- '보금자리를 찾아 도당산으로 넘어오고 있는 고라니를 지켜주세요!' 정크아트 진행

살림꾼들의 첫 정기모임! 계속된 비에 담당자는 걱정했지만, 우리 살림꾼들은 작은 담배꽂초들부터, 신발 깔창에, 그냥 먹고 놀이터에 버린 버거킹까지 비가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줍고 가야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도당산에 고라니 개체가 8마리 이상이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중이래요! 고라니들이 살기 위해 보금자리를 찾아 도당산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니를 지켜주기 위해 '지켜도당!'을 주제로 정크아트를 진행했습니다.

* 정기모임 2차

- 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환경토크
- 멸종위기종 멧꿀이를 보호하기 위한 멧꿀이 서식지가 우리동네에 있다고?
- 정크아트와 박스피켓을 활용한 환경적 메시지 전달 '돌아와 멧꿀!'

‘여러분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론만 공부하다가 실제 활동 사례들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환경공학과 친구들부터, 어느 날 천변을 걷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 혼자서 플로깅을 시작했다는 참여자까지. 환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아까 인후동 이야기하면서 기린봉에 멧꿀이 서식지가 생겼는데, 오히려 멧꿀이가 더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환경적인 메시지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돌아와 멧꿀! 컴백꿀!” 정크아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특별모임

- 동고산성을 돌면서 후백제의 역사와 유적을 함께 공부해보기
- 기린봉의 뒤편에 있어서 인후동이 되었는데요! 정크아트 진행

카톡~ 카톡~ 참여자분들의 또 만나고 싶다는 인사에 살림꾼들의 공식적인 모임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모임이 이어졌답니다.

기린봉에 모여 오늘도 집게 들고 플로깅가방을 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나섰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며, 그동안 파묻혀있어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까지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날 무려 2010년에 생산된 핫브레이크도 나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정말 비닐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체감했습니다.



* 끈들의 지속적인 모임을 위하여

‘함께하면 더 큰 영향력을 만듭니다!’ 쓰레기를 줍기만 하면 정화 활동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에 공유하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하나의 운동임을 모두가 경험하고 매월 정기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우리 동네의 쓰레기들을 소탕하고 왔는데요! 먹다 남은 치킨, 항상 나오는 신발 깔창들,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쓰레기 더미들.. 엄청난 악취를 뚫고 깨끗한 인후동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 과제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단독방에 공유하며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우리동네 쓰레기살림꾼들의 활동기록을 소개하고 정크아트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쓰레기들이 나왔는지, 이 쓰레기가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보여주며,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을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점은 환경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발대식 때 분리배출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흥미로웠어요. 혼자서 하는 것들이 내가 맞다고, 분리배출 재활용 잘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올바르지 않은 게 많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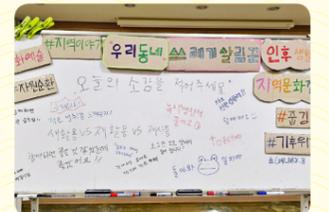
“개인이 혼자 노력하다 보면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까?’라는 의

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주변을 살펴보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뜻깊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프로젝트 있으면 얼마든지 참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MAKERS 인후

올해의 메이커스 인후는 다채로웠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지역민들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민이 직접 수공예 전문가가 되어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문화적 배경과 장점을 살려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했다.



한중일 한상차림 * 미니어처한상 *

2023년 전주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사실은 다들 아시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센터에서도 한, 중,일의 대표음식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국의 대표음식은? 역시 비빔밥이겠죠! 색소를 활용해 고추장도 만들고, 콩나물, 우엉 등 원하는 재료로 토핑을 했다. 일본은 초밥과 우동과 사케가 있어야 한다며 미니 밥상에 술병을 올려놓던 참여자가 생각난다! “맞아요. 초밥에 사케는 정석 아닌가요?” 중국은 짜장면을 만들고 만두를 빚어보는데 작은 크기로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웠다. 동그란 만두가 넓적 만두가 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료들과 식기들 그리고 토핑 하나하나로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한상을 멋지게 차려냈다.



한중일 한상차림 * 중국편 *

짜잔! 중국인으로부터 직접 중국의 음식문화에 대해 듣고 대표 주식음식인 중국만두(썬오즈)를 만들어 보았다.

짱리홍 : 중국은 지역마다 음식이 다르고, 명절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라요. 추석에 우리는 송편과 전을 부쳐 먹는다면 중국인들은 월병을 꼭 먹어요 그런데, 이 월병은 주로 사서 먹고, 주식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두입니다. 배추, 돼지고기, 부추, 계란 등 만두의 속도 정말 다양해요. 그중 우리는 부추계란만두를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만두피밀기, 부추 썰기, 스크램블 만들기까지 다 되었나요? 그럼 만두 빚어볼까요?

참여자 : 우리가 알고 있던 만두와 많이 달라서 맛이 궁금했는데 엄청 담백하네요.

참여자 :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모르는 동네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인후생활문화센터 매일 오고싶어요



한중일 한상차림 **일본편**

중국편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인으로부터 ‘일본 문화와 음식’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문화도 알아보고 일본의 대표가정식 ‘테마키즈시와 오스마시’를 함께 만들어보았다. 다 함께 모여 밥 양념부터 젖은 행주로 닦는 과정까지 시작해보고, 오이, 맛살, 연어 등 얇게 채 썰고, 김 위에 밥을 얹어 좋아하는 재료들을 잔뜩 넣는다. 밥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간단하면서도 나름 고난이도였다는!

테마키즈시는, ‘손으로 말다 스시를’이라는 언어의 의미도 풀어주시면서 일본인들은 김을 바삭바삭한 밥에 싸먹는 걸 좋아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밥뿐만이 아니라 파스타나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잘게 잘라서 간장과 설탕을 넣어 조려서 보관한다고도 한다!



한중일 한상차림 연말잔치 **김밥대접**

한중일 한상차림의 마지막 시간!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의 김밥이 엄청난 유행이라죠? 또 우리 맛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전주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지역민과 외국인이 함께 모여서 김밥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인후동 토박이로부터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외국인들이 가져온 특별한 재료로 각각의 김밥을 만들어보았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 적응기,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등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설날 강정만들기

설은 온가족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는 우리나라 대표 고유명절이다. 핵가족화로 조부모와의 왕래가 줄면서 ‘서로 만나면 어색하다’는 말이 씩씩한 여운을 남긴다. 조부모, 부모, 자녀 삼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놀거리, 먹거리 체험활동으로 이용객들의 요청과 만족도가 높은 강정만들기를 다시 준비했다. 올해로 3년째다 우리 이웃들은 강정을 만들며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는지 들어보자!



* 아기자기 그림톡

한국의 전통 나전기법을 활용하여 도안 선정부터 자개 붙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디자인 하며 나만의 그림톡을 완성해 보았다. 강사 없이 영상과 설명서를 참고하며 스스로 그림톡을 만들어보고,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각자의 취향에 나름의 색을 더하면서 그림톡이 완성되었다. 참여자중 한분은 ‘고슴도치 한 마리를 데려왔더니 마음이 맑아지고 치유가 된 것 같다’라는 후기도 남겨 주셨다.



* 올망졸망 다육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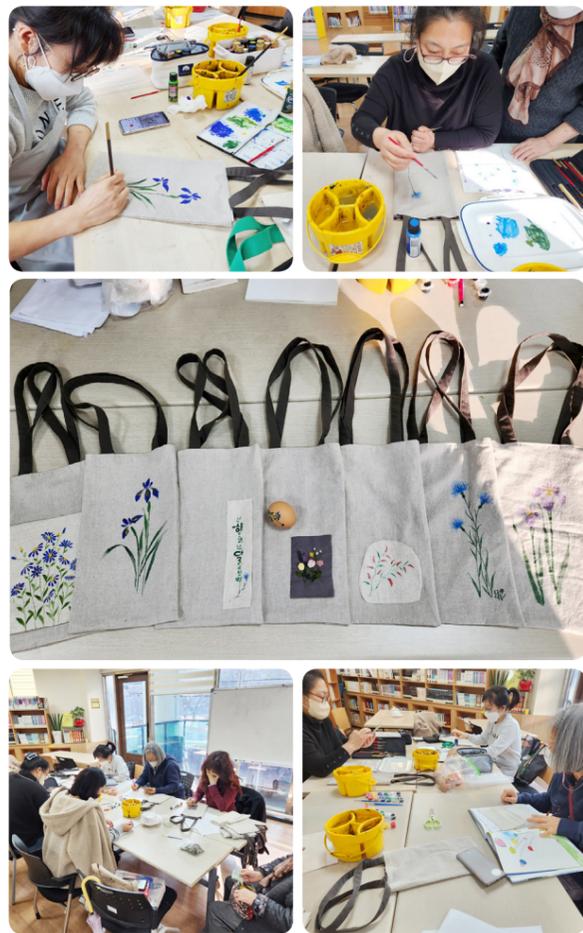
도우아트를 활용한 다육 정원 만들기라고요? 신기해서 담당자는 바로 픽! ‘도우아트’는 재활용 창조예술의 한 분야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우가 발포세라믹이라는 광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환경 광물질을 사용하면 대기 오염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도우아트를 활용해 화분을 만들고, 굳는 동안 나의 꿈을 나무젓말에 적어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가족’, ‘건강’, 그리고 ‘행복’이었다. 다육이가 잘 자라면서 함께 심은 우리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다. 잘 자라고 있을 거야!



* 복을담다

2022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23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삶을 설계한다.

또 한가지 건강과 복을 기원한다. 우리 인후메이커스도 새로운 시도를 끈임없이 해 나 갈 계획이고 오늘은 붓을 들었다. 복주머니대신 좀 더 실용적인 에코백을 만들어 올해는 좋은 기운과 복과 재물을 담아볼 작정이다. 서로가 꾸민 멋진 가방에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한 가득 담아주었다.



* 비오는날의 스케치

단조로운 일상에 색을 입히는 것은 너무 재밌다. 천아트를 활용하여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일상의 감동을 느껴본다. 하얀천에 패브릭물감을 활용하여 꽃, 애완동물, 식물 등을 그려보고 실생활 소품에 활용하여 멋을 더했다. 오늘은 초급자들도 어렵지 않게 우산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무채색의 우산에서 꽃이 활짝 피어난다. 생활문화의 꽃망울이 하나 둘 터져 나오며 온 동네에 향기를 실어 나른다.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려보았다. 더 선명해지는 꽃 잎 위에 이슬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다.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 예쁘다!’



* 오픈하우스

인후생활문화센터이용이 낮설고 문화 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센터에서 운영 중인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동호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오픈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쫄꼬미인형,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재미있는 수공예체험거리를 마련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 나를 닮은 보글키링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책가방패션으로 키링이 유행한다고 한다. MZ세대들도 가방에 인형을 달았던 과거의 나를 생각하며 인형, 레이스, 리본, 목걸이 등 다양한 취향으로 키링을 선호하고 힙쟁이가 된다는데, ‘나 X세대 절대 유행에 밀리 수 없지’ 기성세대는 합리적 소비를 하기에 내게 필요한 실용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서 유행에 민감하다. 이제 퀼트를 활용하여 직접 나를 닮은 키링을 만들어 보자.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꿰메고 뽀글이머리 만들어 붙이고 ‘오 마이 갓 나랑 닮았어’ 웃음이 끈임없이 터져 나온다.



2023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드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고생한 나에게 힐링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연주를 하고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1시 기타 젊은 시절 바쁜 삶은, 여가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청바지에 통기타하나 메고 즐거웠던 청춘이 항상 그리워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퇴직을 하고 시간이 나지만 이젠 용기가 나질 않았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독학을 해 보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함께 센터에 오게 되었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토요일이 이제는 나에게 황금같은 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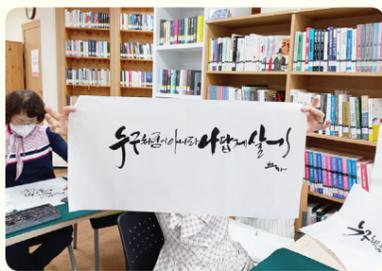
목욕기타 왜 목요일 저녁은 이렇게 비도 자주 올까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기타 좀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에 빗속을 뚫고 센터에 온다. 기타 수업도 재미있지만 같이 배우는 수강생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도 즐겁다. 간식을 나눠 먹고, 한주간의 일상을 나누고 혹시라도 빠지면 안부를 묻게 된다.



수채화교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다른 수강생 작품을 보고 있으면 내 실력에 다소 의기소침해 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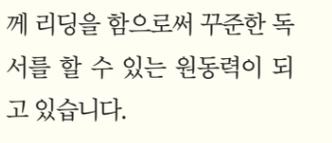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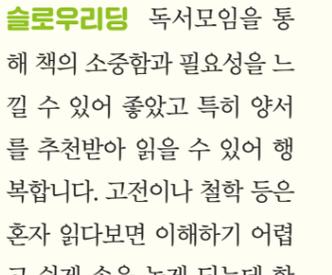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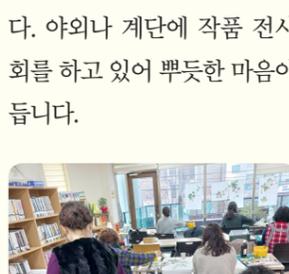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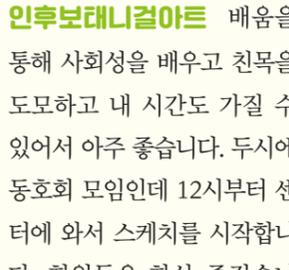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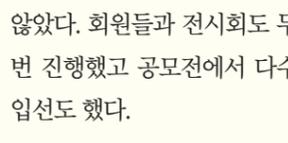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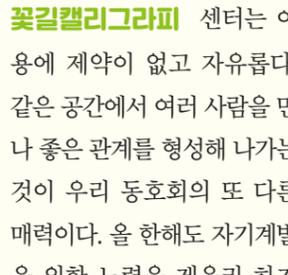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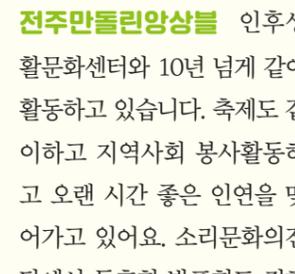


영어회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영어에 대한 발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의 성의 있는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수강생의 좋은 태도도 좋아요.



붓펜캘리그래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다. 먹 향기가 참 좋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붓을 들기만 해도 손이 덜덜 떨렸는데 지금은 크게 호흡한번하고 깨끗한 화선지에 내가 바라는 소망,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글귀를 차분히 써내려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2023 동호회 프로그램 동호회원 한마디



천둥소리

웰빙요가

인후보태니컬아트

필로소피아

전주만들린양상블

캘리바라기

인후보태니컬아트 배움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친목을 도모하고 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두시에 동호회 모임인데 12시부터 센터에 와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회원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야외나 계단에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북마스터클럽

슬로우리딩

슬로우리딩 독서모임을 통해 책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양서를 추천받아 읽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전이나 철학 등은 혼자 읽다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손을 놓게 되는데 함께 리딩을 함으로써 꾸준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만들린양상블 인후생활문화센터와 10년 넘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같이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고 오랜 시간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어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동호회 발표회도 진행할 만큼 실력을 많이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주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꽃길캘리그래피

꽃길캘리그래피 센터는 이용에 제약이 없고 자유롭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동호회의 또 다른 매력이다. 올 한해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회원들과 전시회도 두 번 진행했고 공모전에서 다수 입선도 했다.

먹으로그리는세상

쓰임매직

생활문화 네트워크



* 인후1동 자생단체와 함께한 『안골콘서트』

인후동지역민들의 마을축제 안골콘서트는 지역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축제이다. 인후동자생단체 주관으로 주민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 부녀회 등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친목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천동소리 동호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공연, 체험, 특산물 판매, 경품권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 안골노인복지관 『어르신 배식봉사』

주민센터와 자치위원회 전주시와 함께 안골노인복지관 어르신 점심배식봉사에 참여하였다.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반가움과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고 여전히 우리동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셨다. 함께 참여한 지역의 여러관계자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좀 더 살기 좋고 후덕한 인후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의 끈을 단단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 지역어린이집 네트워크 사업 『꿈꾸는 창작 놀이터』

인근 어린이집 유아들을 초청하여 센터 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도서관을 활용하여 책 놀이를 진행했다. 이는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인후센터의 장점을 살려 영유아와 함께하는 가족단위이용객들의 놀이, 발견, 학습, 휴식의 편의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개구리아 나와라

🎨 그림책 '나는 잠만 잤는걸'

개구리의 생태 알아보기/ 개구리나팔 만들기/ 개구리잡기 신체놀이



나는왕이야

🎨 그림책 '고릴라 왕과 대포'

전쟁을 축제로 변화시키는 재치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왕관, 대포 만들기/ 대포를 쏘아 컵 쓰러드리기 신체활동

우리는친구

🎨 '우리는 친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이야기나누기/ 친구얼굴그리기/ 계란유키기 신체활동



앵무새야 안녕

🎨 그림책 앵무새 열 마리

색종이 접기를 활용한 새집, 앵무새 만들기/ 보물찾기 신체놀이



검쟁이호랑이

🎨 그림책 딸랑새

호랑이가 등장하는 전래동화 이야기 나누기/ 호랑이 액자를 꾸미기/ 술방울 찾기 신체놀이



이야기보따리

🎨 그림책 이야기

아프리카 전래동화 알아보기/ 우리나라 옛이야기 알아보기/ 퍼즐찾기놀이



❁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2023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지원사업』

사드락 사드락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와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에 등록된 3개의 동호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드락사드락 생활문화'는 지역민의 일상 속 공간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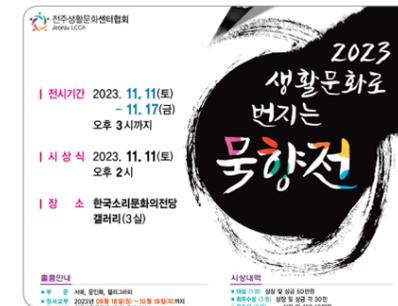
- 1차 안골사거리
- 2차 안골어린이공원
- 3차 안골어린이공원
- '드립커피 & 사진인화', '스탬프 키팅 체험', '전통놀이 & 옛날 주전부리 체험' 활동 등 진행



❁ 전주생활문화센터협회
『2023생활문화로 번지는 묵향』

손끝으로 그리는 세상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동양의 사상을 녹여내 한국 서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주시민들의 서예 프로그램 확산과 동호회 육성을 통해 일상 속 서예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참여한 사업이다. 서예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폭넓게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활용될 생활서예 창작물교 육과 제작을 시도하였다.



공모전과 전시회

인후생활문화센터는 20여점의 작품으로 공모전에 참여했고 무려 10점이 넘는 작품이 입선 및 특선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수상된 작품은 시상식을 마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갤러리에 전시를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서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2023인문학향기 넘치는 전주-찾아가는 인문학강연』**

해설이 있는 미니음악회

음악해설과 음악 감상을 통해 인문학에 관한 관심과 지역민들의 문화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주최로 'The 문화' 연주자들이 지역민들에게 행복하고 여유 있는 하루를 선물했다. 전문 연주자들이 직접 클래식을 연주하고 곡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통해 막연히 유명한 음악으로만 알던 명곡들의 탄생배경과 스토리까지 알게 되니 더 큰 감동이 느껴졌다.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제17회 평생학습한마당 '평생오피런. 전주 런(Learn)』

평생학습도시 전주시는 '공부하는전주, 학습하는시민'을 구현하고자 전주의 특색을 갖춘 평생학습 축제를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다. 우리센터도 동호회원과 딱지, 투호, 재기차기, 뽑기등 퓨전과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이틀간 시민들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나도한다 키오스크!』

요즘 식당, 은행, 병원, 교통망 등 우리가 이용하는 곳곳에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게 있다. 바로 키오스크(터치스크린 기반 무인정보단말기)다. 키오스크는 우리일상에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어르신들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한다. 커피도, 햄버거도, 차표도 구입할 수 없어 힘들었다는 어르신 이용객들에게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키오스크 기계를 가져와 실습까지 해볼 수 있어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탄소중립 시민교육』**



전주시의 2050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 및 일상 속 실천방안을 내용으로 한 탄소중립 홍보동영상을 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동호회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도록 교육했다.

*** 효자시니어클럽, 안골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사회활동서비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 해 동안 센터환경정리를 해주시고 이용객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계단 갤러리



전민주 작품전 2023. 1월

풍경을 그리는 어반스케etch스 활동으로 공원, 가게, 꽃등 전복의 소소한 일상을 투박한 솜씨로 그렸다.



인후보태니컬아트 동호회 작품전 2023. 2~3월

각 식물의 특징을 살려 예술혼을 담아 생명을 불어넣는다. 꽃향기, 풀내음이 술술 풍겨온다.



꽃길캘리그래피 동호회 작품전 2023. 4~5월

때로는 그림한 점, 글귀 한 구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꽃길동호회도 그렇다.





김아랑 '팝아트' 작품전 2023. 6월

익숙한 대중문화를 작품에 접목하여 보다 친숙하게 미술에 다가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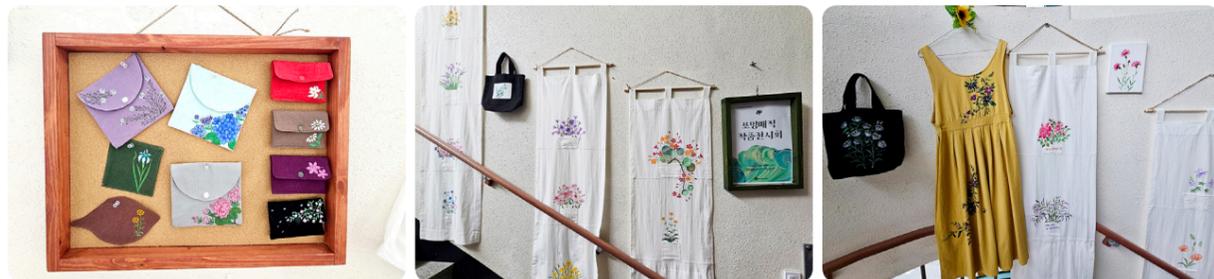
김태영 '나뭇잎아트' 작품전 2023. 7월

제 삶을 다하고 떨어지는 마른 나뭇잎 안에 사람과 자연의 모든 삶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표현했다.



소잉매직 동호회 작품전 2023. 8월

천아트를 생활소품에 접목하여 단조로움에 멋을 더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은 삶의 포인트가 된다.



유정연 '쓰레기 살림꾼' 정크아트 2023. 9월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로 지역의 쓰레기를 줌과, 환경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정크아트로 표현했다.



양말희 '마리, 천에 꽃 피우다' 작품전 2023. 11월

잊혀져 가는 우리꽃이 생활소품속에서 생기를 되찾아 지지 않는 꽃으로 태어나면서 기쁨을 준다.



박병대 '흐름' 작품전 2023. 12월

바람따라, 물결따라, 구름따라 흐르는 만물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흐름'이라는 주제로 표현했다.



책마을

인후1동의 중심인 안골은 아마도 '도 세 권'의 적용을 받는 구역이 아닐까 한다. 근처에 시립도서관이 3곳, 작은도서관이 5곳 정도 있으니 말이다. 그 중심에 위치한 우리는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지역의 문화, 예술, 인문활동의 플랫폼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주변상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도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여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르곤 한다.

시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용자들에게 편리와 만족감을 제공하여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단위 이용자들이 증가하였고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과 단체방문을 하여 독서와 책놀이를 즐겼다.

2023년은 '치유'라는 도서관 슬로건에 맞추어 주민들이 힐링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식물이 있고, 음악과 함께 했으며 그림이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자 했다. 우리도서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서가와 공간 부족은 전주시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받아 깔끔하고 다량의 신간도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전주시립도서관 대출증 소지자는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똑같이 1인 10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또한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시립, 공립작은도서관들의 자료검색과 상호대차서비스를 3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독서문화플러스

* 봄마중

혹독한 코로나19로 사람과의 만남이 편치 않았었다. 이른 꽃소식과 함께 사람과의 만남도 갖고 새로운 봄도 맞이하면서 꽃을 활용하여 리스를 만들어 마음의 꽃을 활짝 피워 보았다.



* 천냥금기르기

식물을 통해 환경과 자연 그리고 마음까지 정화하는 플랜테리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가정에서 유용한, 유해한 식물들에 대해 배워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공기정화와 심심의 안정을 찾아본다.



* 그 가방에 뭐있니?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급스런 가죽가방을 만들어 멋내기를 시도해 보았다.
토드백 안에 나의 일상을 담아 훌훌 떠나보는 건 어떨까?



* 책 속 친구를 소개합니다

주말을 활용한 가족단위 책 놀이 독후활동으로 원하는 그림책을 읽으며 책 속 등장인물을 형집인형으로 만들었다.
구성원이 역할극을 해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 농부아저씨 감사합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 NO!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YES!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농산물의 소중함과 농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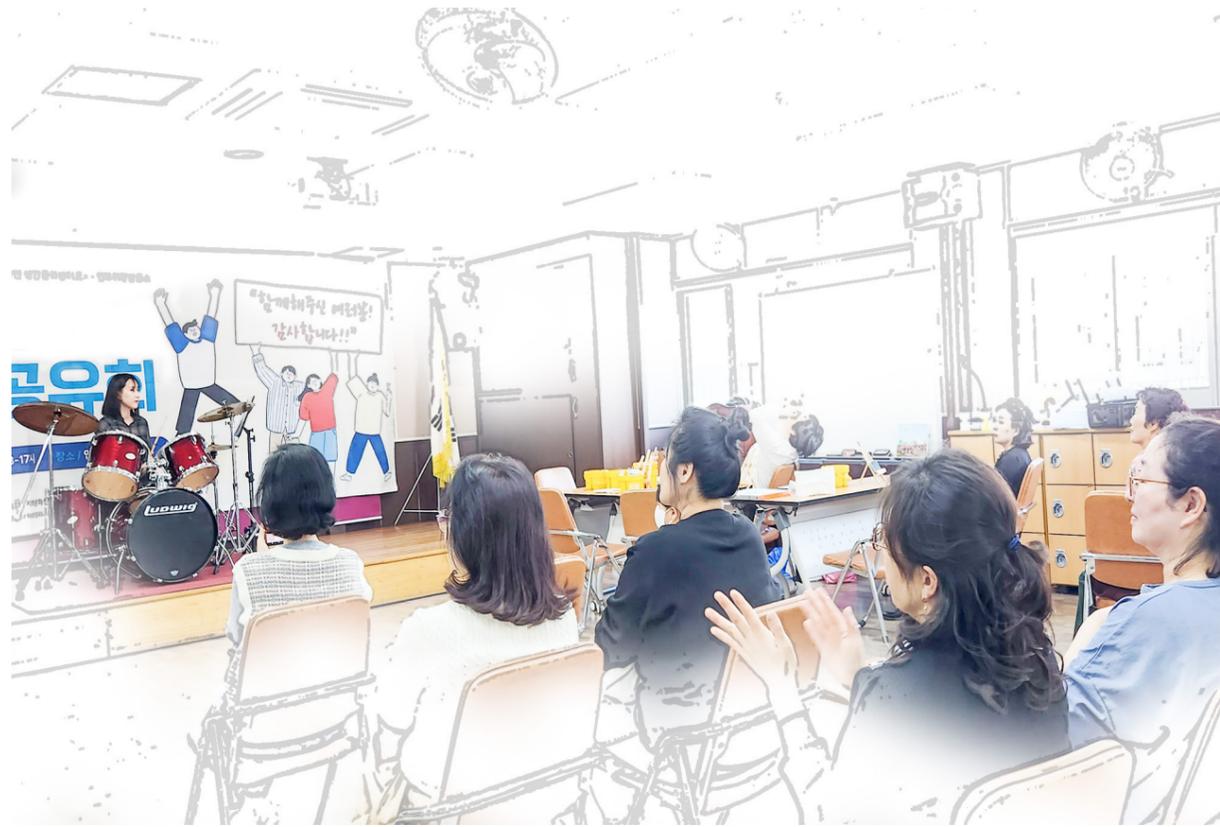


*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만들기'

사라져가는 명절 풍습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소환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각색 예쁜 송편으로 숨씨자랑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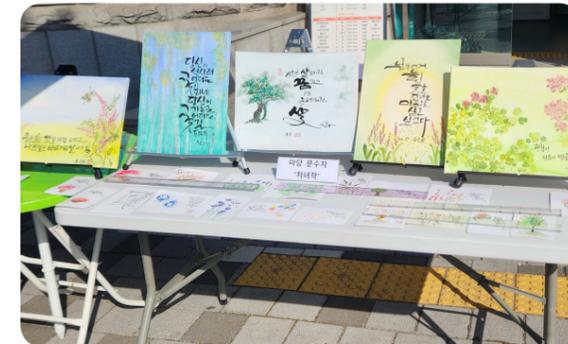
사업성과공유회



한 해 동안 인후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기획단, 동호회원, 참여자들, 지역민들과 함께 공연, 체험, 거리전시 등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며 차기사업추진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재도약의 자리가 되었다.

올해 기획사업의 주축이 되었던 취향발굴단 외에도 ‘꽃길캘리그래피’, ‘먹으로그리는세상’, ‘인후보태니컬아트’, 동호회와 수채화교실프로그램에서 거리 전시회를 진행해 주셨고 ‘드럼’ 수강생의 재능나눔 공연과 플리마켓이 열리는 등 센터 내, 외부에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만났다.

“맛있는 달고나 냄새가 와서 왔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주말엔 이 거리가 되게 삭막했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거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자주 왔었는데 여기 3층은 처음으로 와봤어요. 넓은 공간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매듭공예는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재밌어요!!”
 “인후생활문화센터 때문에 SNS 도 만들었어요. 자주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후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민들의 취향발굴과 문화향유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인후생활문화센터가 슬리퍼만 신고도 가볍게 찾아와 즐기고, 배우고,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예술권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인후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성과를 내주신 생활문화동호회, 지역공방, 지역 예술인, 취향발굴단, 주민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인후생활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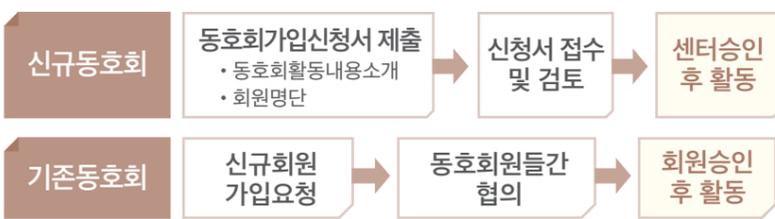
이용안내

전주시민 누구나 상시이용 가능
 평 일 - 09:00~18:00
 토요일 - 10:00~17:00 *도서대출 15:00까지
 휴 무 - 일요일, 법정, 임시공휴일, 국경일, 명절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참여



공간대관 신청



대관신청시 참고하세요

- 대관가능일정을 센터와 사전협의 후 대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종교적, 상업적, 영리목적 활동은 대관불가
- 이용료 : 유료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 행사 교육 연습	1회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이용시간 : 4시간 •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가산

계단갤러리 전시



문화창작실(110㎡) 수용인원 40명
 • 요가, 드럼, 댄스, 통기타, 수채화 등 프로그램운영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설치



정보사랑방(44㎡) 수용인원 15명
 • 학습, 교육, 동호회활동공간
 • 소규모강의 및 회의
 • 칠판, 이동식빔프로젝트설치



열린공간(71㎡) 수용인원 25명
 • 소규모공연, 음악회, 발표회진행
 • 지역청소년들의 연습공간
 • 영화감상, 풍물수업등 운영



안내데스크&복도(30㎡) 수용인원 10명
 • 마주침공간으로 이용객응대 및 안내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정보비치
 • 이용객편의시설제공



작은도서관(93㎡) 수용인원 40명
 • 10,000여권의 도서비치
 •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공간
 • 전시, 나눔장터, 독서동아리활동운영



계단갤러리
 • 프로그램 및 동호회원 작품전시
 지역주민 누구라도 전시가능



쉼터(발코니) 수용인원 10명



출입문



2층 출입문



in Who?

2023년 12월 Vol. 7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발행인 고미숙
편집인 성은숙, 고금례, 한아름, 유정연
발행처 인후생활문화센터 www.jeonjuculture.or.kr/inhoo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290 2F
TEL : 063) 247-8800

♣ 인후생활문화센터 자료집 'In Who?'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